[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닥나무	우리생활에 이로운 나무 - 닥나무
5. 닥나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것들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종이를 빼놓을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나무가 한지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던 닥나무 입니다. 여름에는 나무열매가 산딸기 같이 생겨 많은 탐방객들에게 산딸기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더러는 산딸기 같은 열매를 먹기도 하는데 입안에서 끈적이고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약서너시간 동안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헌에는 이 닥나무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열매가 열리면 직접한번 경험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떤맛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닥나무를 한자로는 저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라는 글자는 한지를 말하기도 하였고 조선시대에 종이화폐를 저화라고 불렸습니다. 닥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나무줄기를 잘라 솥에 넣어 껍질이 흐물거리며 벗겨질때까지 푹 삶은 다음 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린후 다시 물에 불리고 발로 밟아 하얀 내피를 가려내고 양잿물을 섞어 담가두었다가 물기를 짜내고 이렇게 뭉진 종이 덩어리를 닥풀뿌리을 으깨어 나온 끈적끈적한 물에 넣어 풀리도록 잘 섞고 발을 걸어 떠서 말리면 종이가 됩니다. 지금도 이 닥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고 있는데 가까운 종이공장이나 이 근처에 있는 산림 박물관에 가보면 이 닥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이야기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주요용어 정리	○ 우리생활에 이로운 나무 - 닥나무
참 고 자 료	○ 닥나무 하면 이 나무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이들도 종이를 떠올린다. 예전에는 닥나무 껍질이 소중한 종이의 원료로 이용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 종이의 원료는 나무가 대부분이고 닥나무는 창호지에 국화 잎이나 단풍나무 잎을 사이에 끼워 넣고 곱게 펴 바르던 문짝 윤기로 반질거리는 안방의 장판만큼이나 구경하기 어려운 추억속의 나무가 되었다 - 중 략- ○ 산기슭이나 밭둑에서 자라는 갈잎떨기나무. 2~3m 높이로 자란다. 4월에 새 가지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는 실 같은 붉은 암술대가 둥글게 모인 암꽃이 달리고 밑부분에는 타원형의 수꽃이삭이 달린다. 가지에 달걀 모양의 잎이 서로 어긋난다. 공처럼 둥근 열매는 초여름에 주홍색으로 익으며 먹을수 있다. 질긴 나무껍질을 이용해 화선지나 창호지 같은 한지를 만든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무 백가지/이유미/현암사 p168 식물관찰도감/윤주복/진선출판사 p132
